

열린마당

불교지도자의 덕목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10월 29일 중앙총회의원 81명을 뽑았다.

4년 동안 불교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 및 집행부 감사 활동을 벌인다. 12일에는 새 총무원장을 뽑는다. 또 중앙총회 의장도 뽑는다. 불교의 지도자는 불교인의 지도자가 아니다. 1천만 불자들은 물론 온국민의 정신적 사표이다. 더욱이 20세기를 마감하고 문명의 전환이 예고되는 21세기를 여는 시점이다. 지도자는 어떤 해야 하는지 불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편집자 주>

자기허물 비판하는 용기

지묵스님(김상사 수련원장)



우리 스스로의 허물을 대면할 수 있는 담담함과 아픔을 감수하며 씻어낼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때다. 우리의 허물은 무엇인가.

조계종의 현 종단구조는 행정기관이 너무 비대하다. 세속인의 눈에 총무원이나 중앙총회가 권력의 중심처럼 비쳐져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일지 대 수행과 교육, 포교에 중점이 모아져야 할 당연한 이치이다. 차체에 총무원 중심의 종단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교육과 포교를 뒷받침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선거는 지도자를 뽑는 축제라고 흔히 말한다. 불교의 선거도 예외이

지 않다. 불교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를 모시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일들을 보면, 권력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니 웬일인가.

현행의 조계종 선거제도는 세계에 어느 종교단체에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선거제도가 부처님의 정신에 합당한지, 혹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때다. 장로의 권위를 받드는 무형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상의 바램을 귀담아 듣는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한다.

시대흐름 간과 미래예측

이계홍(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개인적 행복이면서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큰 영광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영명할 지도자를 만났다고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진면목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일단 지도자 반열에 오르면 합류고 물어뜯어 탐자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정서였다.

불자로서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는 자명하다.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간파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비전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보수적이고 퇴역적이며, 그리고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곧잘 듣는데, 이런 그런 말 자체가 퇴보와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 또한 너무도 자명하다. 각자 다른 의견을 아우르는 통합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카리스마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키우고 따르는 토양이 갖춰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치 않을까. 인간이란 환경적·시대적 상황에 의해 탄생되기 때문이다.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 (45년11~12월)

치덕스님과의 대화

- 1945년 11월16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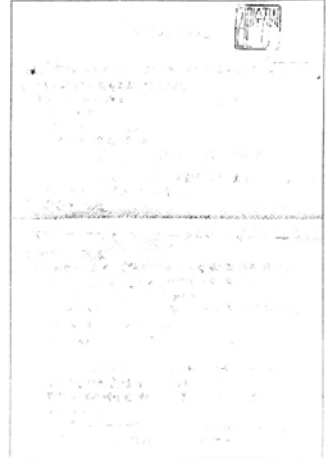
저녁나절 잘 알 백양관(白羊館) 근처로 산책을 나갔다. 이영을 엮는 농부 서넛이 보였다. 백양관 맞은편 아랫집 문이 활짝 열렸고, 들여다보이는 부엌에 깨끗한 사람이 놓여 있었다. 음식점 같아서 술이나 한 잔 할까 하고 물었으나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일제의 전시(戰時)가 끝난지 얼마 안된 탓이려니 하고 그냥 절로 돌아오고 말았다.

저녁을 먹고 뜰에 무료히 앉았다가 최덕림 스님을 만나 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불교'란 대체 어떤 종교인가 공금에 하니 불교는 종교 중에서 범위가 매우 넓은데 그것은 추구하는 영적(靈的) 세계가 무한한 것으로, 인간은 생사(生死)의 기로에서 동물과 구별되지만 불교에서는 우선 죽음을 초월하여 죽어서 인생(人生)세계를 버리고 영적세계로 간다고 믿는다고 했다.

스님은 유심론(唯心論)과 유물론(唯物論)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철학에서는 우주의 형성을 하나의 실체로 설명하려는 일원론(一元論)과 정신과 물질 두 실체로 설명하려는 이원론(二元論), 많은 실체로 설명하려는 다원론(多元論)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세상의 사물과 현상은 마음이 변하여 생긴 것이라는 화엄사상에 따라 마음 이외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유심론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철학으로 풀려나는 생각에 불교의 이상(理想)이 무엇인가하고 물었더니 좌선(坐禪), 천화(遷化)를 최고의 이상으로 한다고 답하였다. 가만히 묵상(默心)하여 항상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통일시키는 선, 자신의 마음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악의 인간세계를 떠나 영(靈)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는 최고의 이상이라고 했다.

애기가 깊어질수록 공금증이 더해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질문을 했다. 불교는 종교 중에서 이론이 가장 발달하였고 철학분야로도 발전하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올라 이 점에 관해 문자 철학에서 아직 의문시되는 것이 불교철학에서는 해결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불교에 대해 알 듯 모를 듯한 매력을 느꼈다. 불교가 일반 민중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정신지도로 맺어지는 효과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신앙함으로써 수양하고 옳은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는 요지였다.

특히 불교는 귀일적(歸一的)이므로 다른



김민수교수가 춘민정음을 기초로 작성한 한글강습회 국어교본.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 스님의 거침 없는 답변이 인상 깊어 이야기에 열중하다가 보니 등잔불 돋우는 것도 있었다.

청년들의 수련

- 1945년 11월17일(토)

오늘은 웬일인지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다. 잘 음식은 다 채소로 만들었어도 맛이 꼭 좋다. 쌀이 아니면 도저히 먹어보지 못할 맛이다. 하루종일 강습회 강의안 손질을 계속하였다. 낮에는 청년 20여명이 행진해 오더니 극락교(極樂橋)를 건너오기 전 정렬을 하고, 정렬이 끝나자 무릎을 낮추어 행진해 들어왔다. 모두 군인으로 출정했다가 돌아온 청년들 같아 보였다. 절에서 청년 무수 강습회를 일주일 연다고 들은 말이 있었는데 그들이 온 것 같다.

서용스님과의 재회

- 1945년 11월18일(일)

오늘 아침에는 졸졸 흐르는 도랑물로 세수를 하려고 극락교 위쪽으로 나갔다. 세수를 하고 길로 올라서는데 위쪽에서 이상순(李尙純·現 고불총림 방장 서용스님) 스님이 걸어왔다. 스님은 서울 청진동 조선학회로 국어강사를 초빙하러 왔던 적이 있었다. 이회승(李熙昇) 교양간사의 소개로 나와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눴다. 서용스님과 함께 절로 돌아오니 따뜻한 아침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삼귀의·사홍서원 지켜야

김문숙(부산불교신문협회장)



삼귀의는 불자들의 기본적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삼귀의 봉창으로 정신을 가다듬는다. 거룩한 스님에게 귀의함이다 라는 귀의사약은 스님다운 스님에게만 귀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스님이라면 모두가 부처님의 화신이고, 현재의 부처님이나 귀의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큰 줄의 주지로 이름난 대덕스님 이거나 어찌 출가한 초보스님이나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고 자신은 부처되기를 발원하고 정진하므로 '스님'이라는 더없이 귀중한 칭호가 주어진다 고 생각된다. 아니 사부대중은 그렇게 믿

고 있다. 추악한 권력싸움으로 불자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된다. 총무원장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여서

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사홍서원을 크게 되새겨 보는 것이 어떠 할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지도자라 해서 불세출의 영웅처럼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삼귀의와 사홍서원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수행자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21세기의 불교지도자 상일 것이다.

전통계승하되 혁신 인정

박범수(대불청 경기지구회장)



사부대중이 승단 운영에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고 점진적으로 승단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면 세간에 섞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수행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는 것을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과거사를 놓고 보더라도,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받았던 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워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매물매종을 일삼았다.

불교지도자는 또 승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불교의 승단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우수하고 참 조적인 승풍이

있다. 그 승풍을 살려서 한국불교가 21세기 정신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 불교의 전통을 복원하는 일은 시급하다.

아울러 환경·노사·통일 등 중생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에 부처님의 법을 투영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없는 가르침인 불교는 중생들을 위한 중생들의 귀의처이기 때문이다.

누가 차기 종단을 이끌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지선 후보 이어야 하는가?

귀의 삼보 하옵고!

존경하는 월하 종정예하, 원로회의의장 각위원 큰스님, 본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대덕, 오늘날도 묵묵히 수행과 전법에 전념 하시는 대중스님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금번 제29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321명의 선거인단 대덕 스님 여러분!

현 하 우리는 종단이, 종단 내외의 현안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차기 총무원장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종단 개혁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솔직히 의심함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시대 왜 불교 이어야 만 하는가? 이 또한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물질만능에 인간은 고립 반목되어 인류는 지금 공허한 심적 자괴감에 빠져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채워줄 대안이 불교에 그것도 한국 불교에서 찾고 있음은 세계사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자적 찬란한 불교 문화 사상과 이를 계창한 원효, 의상, 원적, 서산, 보우 및 근세 만해, 성철 스님등 걸출한 인물들이 이땅에 있음입니다.

종단을 이제는 더 이상 정책과 중무의 실험장 화할수 없습니다. 대중의 가슴에 종단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이시대 불교가 종단이 인권의 스승으로서 대사회 책임을 지는가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IMF 외환관리 체제라는 건국이후 최대의 위기에 우리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적 가치의 몰락 운운하는 지금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정서가 갖는 금강산을 목전에서 대가입과 타종교 그룹에 선점 당하는 지금 매평 하고 있습니다. ◆부모형제가 돈에 가치만을 두고 살인을 함에 너무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한국 이래도 되나를 곳곳에서 외침에 대사회 책임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생의 근본과 지말의 무명을 해결함에 사원을 다하고 있다 할수 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진리임을 더욱 당당 하게 증명 하여야 합니다. 물질만에 너무나 허무 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정신 이로운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때 우리는 제 29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책무를 다할 인물이 누구이며? 후보중 누가 가장 책임인가를 고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 하는 종정 예하, 원로 및 중진 대덕그리고 대중 스님 여러분!
선구자적 자세로 종단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 불교 문화를 창달할 인물 이어야만 다시는 시행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 무소유 정신에 입각한 그 불교적 세계관과 일상 생활상이 검증된 스님 이어야만 합니다.
● 수행과 교화에 남다른 구도자적 자세가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대국민 독창적 불교

문화의 새지평을 열수 있는 인물 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 와 세계에 불교를 전파 하고 인류의 문화 창달에 공헌 할수 있는 인물 이어야 합니다. ●현 국난인 IMF 사태를 해결함에 불교적 역량을 발휘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부대중에게 덕화의 미소를 보내고 존경을 받으며 화합의 장으로 종단을 이끌고 난제의 해결과 지속적 개혁을 이끌 스님 이어야 합니다.

대중의 마음속에 문종과 대소 상황을 떠나 실지 대세가 지선 스님 이라면 아류적 판단 일까요? 아닙니다. 실지 현 종단의 험난을 헤쳐 나갈 인물로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현 우리 종단은 지난 94년 개혁 회의 이후 외형상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 으로는 고립과 반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승풍을 가장 진작 시켜야할 중요한 분수령적 시기입니다. 실지 모든 대중의 가슴 속에 종단과 현실에 있어서 무엇인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어려운 때 필수로 근본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종단 개혁의 불사는 바로 선구자적, 희생적 각오의 구도심이 있는 승려 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 입니다. 차기 총무 원장 후보중 누가 과연 진실로 불교를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가 바로 선택의 첫 기준입니다. 혹자는 지선 후보는 개혁 주체세력으로서 현 종단의 모든 문제점에 책임이 있다 주장 합니다. 이를 전면 부정 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지선 후보에게 종단의 개혁을 100% 맡겨본 사실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중대한 결심으로 종단을 이끌 진실한 행자를 지명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급속히 변화합니다. 우리는 종단을 더 이상 실험장화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할 일과 해결 하여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덕화가 있고, 힘과 용기가 있는 건강한 몸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중 누가 과연 현종단을 안정, 발전시키고,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달하고, 승풍을 진작시킬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으로 발전적으로 종단을 이끌 우리의 도반과 같은 원장이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위대한 가르침을 전제와 사장에서 당당하게 대중의 가슴에 접속 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종단의 근본적 철학과 제도적 틀을 건축할 것입니다. 지선은 그일을 할 것입니다. 전 중도에게 책임의 중무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작은 총무원 큰정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종도 예게는 그 고고한 수도자의 상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서민 대중에게는 항상 의지할수 있는 견고한 지팡이로서의 목탁이 될 것입니다. ◆국가 사회의 지도층에게는 올바른 보살행을 행하게 할 정책자로서의 목탁이 될 것입니다. ◆지선은 암울했던 지난날도 그랬듯이, 앞날에도 사회와 국가를 밝히는 장명등으로서의 목탁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선이 총무원장 후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진실이 여기에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불기 2542년 10월 31일

실천적 불교문화 창달을 요구하는 전국대학교수연합 일동

● 오해와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한 분들의 명단을 게재하지 못합니다.